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**천년 전북!**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 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▪ 담당 : 산업경제연구부 황영모 연구위원
(063-280-7132)

보도시점: 2019년 10월 14일(월)부터

농촌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 연계 정책방안 마련해야

농촌주민의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구체적인 지원방안 필요
농촌생활돌봄 서비스, 공동체조직과 청년활동인력 담당 제안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상대적으로 사회관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농촌지역 고령의 원주민과 다문화 배경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한 생활돌봄에 청년 일자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.
- 전북연구원은 14일 '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'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돌봄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농촌주민은 생활상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갖고 있지만 절대적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완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 일자리를 통해 농촌의 생활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가자는 것이다.
- 또 기존 공적부조*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'농촌사회'가 적극 개입해 농촌주민의 '생활돌봄**'을 채우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.

* 공적부조 : 빈곤계층의 기본적 생활욕구 해결을 위해 소득보장, 의료보호, 교육, 주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원 제도

** 생활돌봄 : 장보기, 말벗, 이동지원, 세탁, 주택관리, 가전제품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

○ 전북연구원은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'생활돌봄'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·귀촌 등의 청년인력을 활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했다.

○ 첫째, 생활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*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(귀농·귀촌) 청년의 직원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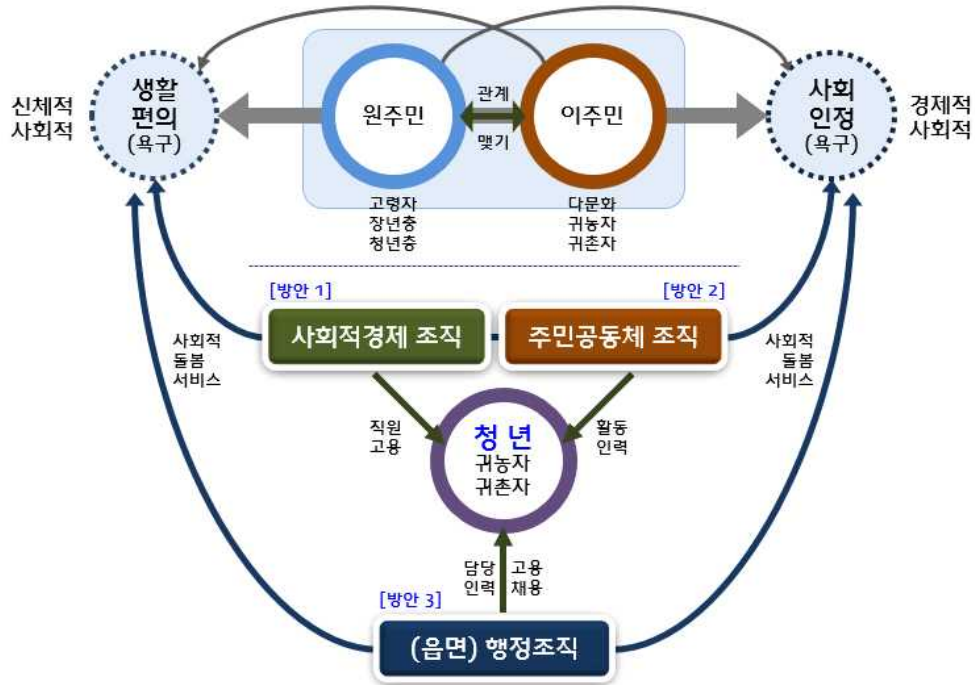
* 사회적경제 조직 :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활동 조직으로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을 꼽을 수 있음

○ 둘째, 지역사회 주민공동체 조직*이 다양한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(귀농·귀촌)청년을 직접 고용하고 관련 사업·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.

- 주민공동체 조직 : 주민자치회, 마을회, 농업인단체, 시민사회단체, 농업인 학습조직 등을 꼽을 수 있음

○ 셋째, 농촌지역 생활경제권인 읍·면의 행정조직(주민자치센터)에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담당인력으로 (귀농·귀촌) 청년을 고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.

<농촌 생활돌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개념>



-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“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듯 ‘주민행복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한다’는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고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농촌내부의 인적 자원을 활동주체로 하는 역할찾기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